



“책 없으면 불교는 화석이 될 겁니다”



화남출판사 방남수 사장은 앞으로 매년 불서 5권 이상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불서를 만드는 사람들

화남출판사

2월 4일 봄기운이 밀려드는 입춘, 불서읽기 운동에도 조금씩 씩이 터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불서 만들기 매진하고 있는 현장을 다시 찾았다. 서울 망원동에 위치한 화남출판사 사장 방남수다.

이곳을 처음 보면 불서를 만들어 내는 출판사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는 화남출판사가 인문·소설 등을 아우르는 책을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발간 도서 200여종(저서전 등 포함) 가운데 30여종이 불교 또는 선(禪)에 근거하고 있는 서적이란 점은 예사롭지 않다. 본격적으로 책을 펴낸 시점이 2002년부터였다고 한다.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 신념으로 출판 시작 불교계·문단 등 폭넓은 인맥·추진력이 재산

다면 1년에 적어도 5종의 불서는 만들어낸 셈이다. 지금까지 내놓은 책들의 목록을 살펴보니 불서 외 종교서적은 단 한 권도 없다. 일반출판사가 불서를 전문출판사 못지않은 수준으로 만들어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방남수 사장이 빙긋이 웃으며 답한다.

“제가 불교와 인연이 깊어요.”

화남출판사를 알기 위해서는 방남수 사장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 그것이 화남출판사가 왜 불서출판을 많이 하는 곳인지 알려주는 열쇠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방 사장은 서울 도선사에서 혜성 스님을 은사로 19세 되던 1977년에 출가, 청정 비구의 삶을 꿈꿨던 이력이 있었다.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무작정 도선사에 출가한 그는 이후 10년 동안 불교와 학문 사이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다 방 사장은 1980년, 도선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요즘 진상조사에 나서고 있는 ‘10·27 법난’ 때문이었다.

“군대를 갔다 오니 혜성 스님 상좌는 방부(절에서 거

하도록 해주는 것을 받아들여 줄 수가 없었어요. 그 후 사회로 치열하게 뛰어들자 싶어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서 제약회사 영업부 사원으로 변모해 가정용 뿌리고 10년간 거주했던 그가 다시 한국 땅에 발을 디딘 것은 1991년, 도선사에서 발행하는 월간 <여성불교>의 편집주간을 맡기 위해서였다. 그 와중에 방 사장은 1993년 ‘화남’이라는 이름으로 출판사 등록을 하게 된다. 도선사에서 수학하던 시절 스승 도광 스님이 그에게 지어 준 법호가 바로 ‘화남’이었다. 출판사 등록은 당장 책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자신이 불교 서적을 펴내는 일을 할 것이라는 그 나름대로의 ‘대원(大願)’이었다.

화남출판사에는 이런 방 사장의 삶과 의욕은 물론 불교신자로서 끊임없이 정진해가는 그의 행로, 바로 그것이 녹아있다. 그래서 화남출판사는 곧 ‘방남수’라는 개인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본질과도 같을 터다. 그러면서 불자들에게 그가 몸담았던 불교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채널도 된다.

청담 스님과 같은 삶을 꿈꾸던 방 사장이었기에, 청담 스님에 대한 지극한 경애는 출판사를 시작하며 곧바로 나타났다. 처음 만들어 낸 책이, 청담 스님의 법문을 모은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였다. 요즘도 청담 스님은 그의 정신에서 떠나지 않는 스승이다.

그런 인연 때문인지 화남출판사에서 만들어낸 불서는 일정부분 ‘청담’에 기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청담 스님 관련 책만 펴낸다면 출판사를 차린 의미가 없다. 요즘 그는 해외 불서와 다소 거리가 먼 불서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낸 책이 수자

의 <관(觀)>이다. 시처럼 짧게, 삼화를 넣어 쉽게, 글씨는 크게, 그러나 불교의 메시지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 방 사장이 요즘 고민하는 점을 그대로 답아냈다.

“개신교는 <성경>을 끊임없이 시대와 함께 변모시켜 왔습니다. 불교역시 ‘화석’처럼 굳어 있어 안됩니다. 그것이 화남출판사가 곁여야 할 길이고요.”

그는 문단에서도 발이 넓다. 김지하·현기영·박완서 등의 생생한 문인들과 교류하며 이들의 책을 펴낸다. 문득, 불서를 만들 시간에 소위 잘나가는 작가들의 책을 한 권이라도 더 만들어 내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방 사장은 절대 불교를 놓을 생각이 없다. 그는 “앞으로도 1년에 5권을 불서를 만들겠다는 각오”라고 다부지게 말한다.

화남출판사를 방문하면서 이 출판사의 색깔은, 말하자면 ‘강렬한 붉은 색’이 아닐까 싶었다. 그 만큼 활동적인 방 사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더 어렵고 힘든 일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 사찰 부도를 돌아보고 내용을 제대로 풀어내는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시간도 노력도 많이 들겠지만 불자라면 누군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이를 바라보고 제대로 된 출판물로 만들어내는 것을 숙원으로 삼겠습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순위	책 이름	저자	출판년도
1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	청담 지음, 혜성 역음	2002
2	부처님의 지혜	김병호	2003
3	마음통자	청담	2003
4	도란 무엇인가	도우	2003
5	마음꽃다발	혜자 지음, 공광규 역음	2003
6	관	수자타 지음, 김문호 옮김	2003
7	수레바퀴 앞에서, 2	백근남	2004
8	애 청담	청담	2004
9	비구니	김정은	2004
10	10가지 선 이야기	불림스외 지음, 김문호 옮김	2005
11	마라난타	민희식	2005
12	10·27 법난의 진실	유영오	2005
13	현호대사, 2	이광수	2006
14	동쪽 산이 울 위로 간다	영암 지음, 원혜 역음	2006
15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신	혜자	2006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법화경

운허 | 동국역경원 | 1990년

이학송(남양주 광동중학교 교장)

모든 사람에게 부처 지혜 얻게 해

지구 곳곳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쓰나미’와 같은 기상이변 현상이 자주 일어나면 탈세론과 인류 위기설 등이 심심찮게 회자된다. 미래세계 가상현실을 그린 ‘터미네이터’나 ‘스파이더맨’ 시리즈 같은 영화 속에서도 인류의 위기가 잘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절대적 절망 앞에서도 정의의 주인공들이 위기를 극복해나간다. 영화 ‘제5원소’에서는 지수화중 4대 원소에 인간의 사랑이 합쳐져서 악을 선으로 바꿈으로써 인류 멸망의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줄 때 시키는 과연 어디에 숨어있는 것일까?



불교사상의 집대성 불교공부의 지름길 ‘법화경’ 보며 긍정적인 성격으로 변화

문득 <법화경>의 가르침이 떠오른다. 모든 사람에게 부처의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인 <법화경>은 약(藥)을 본질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오악(五濁)이 극에 달한 악세라 해도 그 악이 크면 클수록 부처가 출현하여 악을 물리친다고 예언하고 있다. 어떤 악(惡)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부처님이 나타나니 얼마나 큰 희망이요 기쁨인가. 종말을 두려워하는 모든 인류가 읽어야 할 구원의 메시지다.

동국역경원 근무시절 종일 한글대장경을 읽을 수 있는 행운을 누렸다. 그중에서도 <법화경>과의 만남은 또 다른 세상으로의 진입이었다. 운허 스님이 번역한 <법화경>(동국역경원은 그야말로 불교사상의 집대성이라 불교공부의 지름길이다. 원래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던 필자도 <법화경>을 읽으면서 자신감으로 가득차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됐다. 그렇다면 수많은 불자들은 왜 <법화경>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는가? 그것

은 한자경전 독송에 있어 내용보다 외는 공덕만 추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요 의식이나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보문품’을 독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자 뜻을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미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경전을 읽지 않고 뜻도 모르면서 한자로 독송하는 잘못된 풍토 때문에 말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육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약초유품’의 가르침을 되새겨본다.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가 그들의 종류와 성질을 따라서 자라고 크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니, 비록 한 땅에서 나는 것이 며 한 비로 적시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불과 나무가 저마다 차별이 있느니라 (약초유품, 145쪽).

그리고 세상이 힘들 때는 나도 모르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가르침을 읽어본다.

“...관세음보살마하살이 두렵고 급한 환난 가운데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므로, 이 사바세계에서는 모두 일컬어 ‘두려움을 없애주는 이(시무외자)’라고 하느니라(관세음보살보문품, 381쪽).”

모든 중생에게 고루 존재하는 불성(佛性)을 깨우쳐주는 <법화경>은 일곱 가지 비유를 통해 깨달음의 세계로 이끄는가 하면, 일승·열반·인과·불성·인욕·오계·방편·전법(轉法) 등 이 시대를 사는 불자들이 꼭 알아야 할 가르침을 다 담고 있으니, 가까이 두고 읽고 또 읽어야 할 책이다. 세천이 <법화경>의 별명으로 최상법문(最上法門)이라 한 뜻을 새기며.

정월방생 및 성지순례

각 사암 대덕큰스님께 아뢴다
본 성모암은 조선 명종때 창건된 사찰로서 동양의 소 석가의 칭호를 받으신 진목대성사님의 모친 묘소가 있는 무자손 천년향화지(無子孫 千年香火地)입니다
진목대사님께서 열반후 천년동안 향(香)불이 이어지는 명소이며 아울러 근처에 육신방생지가 위치하고 있어 방생 및 삼사순례의 적격지로, 근처 10분 거리에 금산사와 망해사, 귀신사 등 천년고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모암에 순례하시길 성모암 사부대중이 서원 합니다.

-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사전예약)
- 대형주차장(50대 동시주차 가능)에서 평지로 100m이며 노인분들도 참가가 용이 합니다
- 방생을 준비 가능 ·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전통사찰111호) 성모암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063)544-0416
www.sungmoam.net

본 중단에서는 석가세존의 자비사상바탕으로 수행정진에 힘쓰는 중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재)한국불교 중흥교원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마사찰등록 및 승려자격 ○ 타종단에서 사미계 이상 수지한자
○ 법당에 본존불(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여래불)을 모신 법당이여야 함

※ 본 중단에서는 무속인은 일체등록을 불허합니다.

마사찰등록서류 ○ 입종 신청양식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증사본(앞뒤) 1매, 승려증 사본 1매,
○ 중단 간부 소임을 맡을분은 자기소개서 1부 제출

※행자모집(스님이 되고자하는분) : 일체 교육비 없음(6개월간 무료 교육) 스님 양성
※동자모집(불우한 환경속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를 대학까지 책임지고 교육)

입종비 : 일십만원

마유관단체 (사)호국불교단체협의회, 세계불교무술총연합회, 한국불교사암총연합회, 세계불교고승연합회, 영남범음범패 교육원

※본 중단 입종후 중도연수교육 수료후 승려증을 발급합니다.
※본 중단은 강원 및 울진 선원 불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범음범패 이수 받으실분은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경북 구원리 소보면 신계리 318번지 고원사
TEL : (054)382-3363, 3397 / FAX : (054)383-5005 www.gowonsa.com